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2. 22.(수) 06:00 ~ 23:00
- 상담건수¹⁾: 956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이웃집 찰스」 ‘우크라이나 떠나 가족’

-방송일시 : 2023. 2. 21.(화) 1TV (19:40-20:30)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비올리스트인 떠나와 바이올리니스트 남편 샤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한국에 온 뒤 줄곧 군산에서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떠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져 안타까웠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 극본 제언(3명)

-프로그램명 :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방송일시 : 2023. 2. 21.(화) 2TV (19:50-20:30)

강백산(손창민 분)이 흥기로 윤산들(박윤재 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다행히 윤산들은 강태풍(강지섭 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지난 방송에서도 강백산은 사람을 시켜 윤산들을 칼로 찔렀고, 윤산들의 아버지와 은서연(박하나 분)의 부모를 죽였다. 등장인물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끔찍하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ID 영상’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956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35	15	-	-	506	956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61	363	15	-	-	117	956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39	817	-	956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789	8	71	88	956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좋은 남자 좋은 여자」 - 재방송 편성 요청 【보 도】 ○ 「KBS 뉴스 5」 - 보도 제언 【시사·교양】 ○ 「아침마당」 - 진행자 섭외 제언 ○ 「이웃집 찰스」 - 방송 호평 【드라마】 ○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 극본 제언 【라디오】 ○ 「건강 365」 - 방송 호평 ○ 「이현우의 음악앨범」 - 방송 호평	【방 송】 ○ 「2TV 생생정보」 - 「가야대장간」 연락처 문의 81건 ○ 「6시 내고향」 - 「참가자미 문의」 연락처 문의 49건 ○ 「중계방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 - 「편성 시간」 문의 25건 ○ 「아침마당」 - 「방송 제언」 15건 ○ 「KBS 뉴스 9」 - 「보도 제언」 13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6건 ○ 「수신기술」 문의 2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35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8건 ○ 「전화교환」 문의 11건 ○ 「수신료」 문의 5건 ○ 「주차」 문의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88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재방송 편성 요청	○ 「좋은 남자 좋은 여자」 - 1995. 4. 3.~1995. 9. 15. (월-금) 2TV 방송. - 1995년에 방영되었던 KBS 2TV 일일드라마로, 신세대의 결혼관을 조명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그렸다. 방영 당시 인기가 많았고 본인도 재미있게 시청했다. 최근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들은 막장 요소가 많아 피로감이 쌓인다. 탄탄한 스토리와 명품 배우들의 열연이 빛났던 해당 드라마를 추억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P**
[보 도]	
보도 제언	○ 「KBS 뉴스 5」 「[친절한 뉴스K] ‘바늘구멍’ 난민의 길...인정돼도 난관 ‘수두룩’”(3명) - 2023. 2. 21.(화) 1TV (17:00-17:30) - 우리나라도 난민법을 만든 지 11년이 지났지만,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지위를 얻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보도였다.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난민의 입장만 다뤄져 아쉬웠다.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은 오래 전부터 난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니, 난민을 받아들였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도해야 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시사 · 교양]	
진행자 섭외 제언	○ 「아침마당」 - 1TV (월-금) (08:25-09:30) -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매일 아침 즐겁게 시청한다. 다만 현재 김재원·김솔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 너무 오랜 진행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다소 지루하고 식상한 느낌이 든다. 진행자를 교체해서 프로그램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 「이웃집 찰스」 ‘우크라이나 떠나 가족’(2명) - 2023. 2. 21.(화) 1TV (19:40-20:30) -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비올리스트인 떠나와 바이올리니스트 남편 샤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한국에 온 뒤 줄곧 군산에서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떠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져 안타까웠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드라마]	
극본 제언	○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3명) - 2023. 2. 21.(화) 2TV (19:50-20:30) - 강백산(손창민 분)이 흥기로 윤산들(박윤재 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다행히 윤산들은 강태풍(강지섭 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지난 방송에서도 강백산은 사람을 시켜 윤산들을 칼로 찔렀고, 윤산들의 아버지와 은서연(박하나 분)의 부모를 죽였다. 등장인물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끔찍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라디오]	
방송 호평	○ 「건강 365」 - 3R (월-일) (08:05-08:54) - 날마다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각종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진행을 맡은 최윤경 아나운서가 매끄러운 진행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어 매우 만족스럽다. 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를 전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 「이현우의 음악앨범」 - 2023. 2. 22.(수) 2FM (09:00-11:00) - 평소 이현우 씨를 좋아해서 즐겨 청취한다. 음악 프로그램임에도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는 코너부터 남녀의 솔직한 속마음을 톡 터놓고 나뉘볼 수 있는 코너까지, 다양한 코너들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품격 있는 음악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의견제시자 : 익명